

# 새학기 대학가는 수강신청 '클릭전쟁'

전남대 경영대생 A씨(26)는 최근 PC방에서 휴학할 친구를 동원해 2학기 수강 신청을 했다. 접속자가 폭주해 선착순으로 마감되는 인기 강좌 수강 신청에 실패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꾸민 전략으로, 수강 신청에 성공한 친구에게 해당 과목을 취소토록 한 뒤 거의 동시에 접속, 빈 자리에 수강 신청을 하는 식으로 순식간에 진행됐다.

극심한 취업난에 학점따기 좋은 과목·인기 강좌에 몰려

친구·가족 동원 속도 빠른 PC방서 1시간 넘게 대기도

광주·전남지역 대학들 자동클릭 방지 등 대책마련 부심

광주 대학가에도 '수강신청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전남대와 광주여대는 이미 '대란'을 벌였고 수강 신청이 진행중인 호남대(21일까지), 조선대(22일), 광주대(27일), 남부대(28일) 등은 학생들간 '수강신청 경쟁'이 치열하다. 친구와 가족을 동원하고 광케이블로 인터넷 속도가 빠른 PC방을 찾아 수강 신청이 시작될 때까지 1시간 넘게 대기하는 건 기본이다. '수강 도둑'이라 불리는 비밀번호 도용, 자동클릭 프로그램까지 동원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페이스북 등 SNS(사회관계망 서비스)와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인기 강좌 수강 신청 '성공' 인증샷이나 비결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원하는 강좌 수강 신청에 실패한 학생들이

수강 과목 맞교환을 원하는 글도 수강신청 기간이 지난 뒤에도 눈에 띈다. 학기마다 수강 신청 전쟁이 극심한 데는 취업난으로 학점 따기 좋은 과목이나 취업에 도움이 되는 강좌에 학생들이 몰리는 데다, 선착순으로 수강 인원을 마감하기 때문이다. 대학들은 이같은 현실을 고려, 수강신청 1주일 전부터 서버 점검에 나서는가 하면, '자동 수강신청'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놓고 있지만 학생들의 불만을 잠재우지 못하고 있다. 전남대의 경우 지난 2012년부터 은행 대기표를 나눠주는 것처럼 먼저 접속한 사용자부터 순번을 매긴 다음 수강신청을 하도록 하는 자동순번대기 시스템을 운영하고

※ 수강신청 날짜에 계속 보게 될 화면

전남대학교 서비스 접속대기 중입니다.

전남대학교는 대기자를 받고 자신의 순서가 되면 포털 사이트로 이동하게 되어있는 시스템으로 되어있다. 예상대기시간 : 1초

참고! 어떠한 방법으로 수강신청을 하든지, 이 대기 페이지를 보게 된다.

고객님 앞에 1명의 대기자가 있습니다.

현재 접속 사용자가 많아 대기 중이며, 잠시만 기다리시면 서비스로 자동 접속됩니다.

자분히 기다려야 한다

전남대생이 올린 수강신청 성공 비결. <전남대 페이스북 캡처>

있다. 한꺼번에 접속자가 폭주하면서 시스템이 마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컴퓨터 여러 대를 동원해 동일 ID로 접속하거나 마우스 자동클릭(매크로) 방식이나 새로고침(F5) 누르기를 반복해 수강신청 할 경우 그 만큼 대기 순번이 밀리도록 했다. 1분에 수십 차례 자동으로 클릭하도록 한 '매크로' 등이 감지되면 수강신청 내역을 삭제했다. 조선대 등은 수강신청 당일 과부하를 막기 위해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이용해 수강신청할 과목을 미리 담아놓는 '장바구니' (예비 수강신청)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비밀번호를 도용해 상대방의 수강신청을 훼손하는 '수강도둑'을 주의하라"는 안내문이 올라오는 대학도 적지 않다. 이현준(26·조선대 정보통신공학과)씨는 "학교 전산망과 가까운 곳이 더 낫다"는 소문에 수강신청 시작 1시간 전부터 학교 인근 PC방에서 대기했지만 원하는 과목 수강에 실패했다"면서 "복수 전공자가 많은 경상대나 공대는 인문대에 비해 수강신청 경쟁이 치열한 편"이라고 말했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55 해질 19:16  
 일출 10:44 일몰 22:13

건우·직녀 만나는 '칠석'

점차 흐려져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 5~20mm.

◇지역별 날씨(℃)

광주	23/27	보	성	차차흐려져	22/26
목포	22/25	순	천	차차흐려져	23/27
여수	23/26	영	광	차차흐려져	23/27
나주	23/27	진	도	차차흐려져	23/26
완도	23/26	전	주	차차흐려져	23/27
구례	22/28	군	산	차차흐려져	23/27
강진	22/27	남	원	차차흐려져	22/27
해남	23/27	흑	산	차차흐려져	21/25
장성	22/27				

◇바다 날씨

지역	방향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해	북동	0.5~1.0	북동	0.5~1.0
	남부	북동	0.5~1.5	북동	0.5~1.5
남해	남해	북동	0.5~1.5	북동	0.5~1.5
	서부	남서	1.5~2.5	남서	1.5~2.5
제주	서부	북동	1.5~2.5	북동	1.5~2.5
	남부	북동	1.5~2.5	북동	1.5~2.5

◇물때

목포	밀물		썰물	
	05:18	17:41	10:30	22:44
여수	12:02		05:42	
	23:44		18:03	

◇주간 날씨

21(금)	22(토)	23(일)	24(월)	25(화)	26(수)	27(목)
☁	☁	☁	☁	☁	☁	☁
22/26	22/29	22/30	23/30	23/27	22/28	22/29

◇생활지수

식중독	주의
운동	40
빨래	60

# 세월호 인양 첫 수중조사

업체, 침몰 현장에 기지 구축... 10월 말까지 수중 작업

유족들 내달 국가상대 소송 제기

해양수산부와 상하이셀비지 컨소시엄이 19일 '실종자 9명이 남아있는' 세월호를 인양하기 위한 첫 수중조사에 나섰다.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490일 만이다. 세월호는 맹골수도 수심 44m 지점에 뱃머리를 동쪽으로 두고 좌측면이 바닥에 닿은 채 누워 있다. 6825t급인 세월호는 침몰 후 조류·빨 흡착력 등을 고려했을 때 수중에서 무게는 약 8천500t 정도로 추정된다. 상하이셀비지는 지난 15일 중국인 잠수사 96명 등 약 150명을 태운 바지선과 예인선을 한국으로 가져와 세월호 침몰 지점에 닿을 내리고 해상기지를 구축했다. 이들은 응급상황이 없는 한 육지에 오르지 않고 수심이 낮아져 잠수가 불가능해지기 전인 10월 말까지 해상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작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정조기에 맞춰 오후 4시에 잠수사

들이 물 밑으로 내려가 세월호가 어떤 상태인지, 잠수환경은 어떠한지 등을 처음으로 확인했다. 해수부와 상하이셀비지 측은 열흘간 세월호의 상태를 조사한 뒤 이를 토대로 인양 실시계획을 완성하기로 했다. 해수부와 인양업체 측은 앞서 설명회를 열고 내년 태풍이 오기 전인 7월까지 세월호 전체 인양을 완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세월호 참사 유족들은 다음달 중으로 정부에 사고 책임을 묻는 국가상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4·16 가족협의회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의 원인, 처리 과정, 그 결과에 대한 국가의 잘못을 묻고 싶다. 분명 국가의 잘못은 있는데,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고 소송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진도=박연영기자 hypark@

24면 발행·호남최대부수  
광주일보 ☎ 062-222-8111



세월호 인양을 위한 첫 수중조사가 개시된 19일 오후,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3km 세월호 침몰현장에 정박한 상하이셀비지 컨소시엄 소속 1만706t 크레인 작업선 다리호에서 중국인 잠수사가 잠수를 마친 뒤, 다이빙 케이스를 타고 복귀하고 있다. /연합뉴스

# '아파트 신축... 도로 통행 불편' 검찰에 진정

남구 봉선동 라인아파트 입주민  
부지 매각·건축허가 조사 요구

광주시 남구 봉선동 라인아파트 입주민 등 1300여명이 인근 아파트 신축으로 도로 통행이 불편해졌다며(광주일보 7월24일 7면) 허가 과정 등을 조사해달라고 검찰에 진정했다. 19일 남구에 따르면 옛 남구청사 부지 인근 4개 아파트 입주민들은 "옛 남구청사 부지에 들어서는 아파트 때문에 주민들이 10년 이상 이용했던 도로 1차선이 줄었다. 부지 매각, 건축허가 과정을 조

사해달라"며 지난 17일 광주지방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옛 남구청사 부지(1만8000㎡)에는 지하 1층~지상 20층 6개 동 400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건설 중이다. 주민 불편이 야기된 도로는 아파트 건립 부지와 맞닿은 60m 길이의 4차선 도로다. 남구 관계자는 "도시계획상의 도로가 아닌 옛 청사 부지에 포함된 토지로서 청사 출입을 위해 사용됐던 도로다. 매각과 건축허가 과정은 적법하다"면서도 "주민 불편이 있는 만큼 건설사 측과 협의해 민원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日 대사관 앞 분신 최현열씨  
시민단체, 대책위 공식 결성

광주·전남 시민단체들이 일본대사관 앞에서 분신한 최현열(81)씨의 뜻을 알리고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한 활동에 나섰다. "일본대사관 앞 분신 독립운동가 후손 최현열 선생 시민사회 광주전남 공동대책위원회"는 19일 오전 광주시청광장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전남 대책위를 공식 결성했다고 밝혔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대책위는 최씨 뜻을 따라 일본군 위안부와 근로정신대 문제 등 과거사 청산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이는 한편 인터넷 카페(cafe.daum.net/70th815)를 개설한 뒤 치료비 모금, 서울 풋볼 문화제 동참 운동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씨는 지난 12일 서울시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8월 14일)을 맞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주최한 수요집회 도중 유서와 성명서를 남기고 분신, 3도 화상을 입어 서울 한강성심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위중한 상태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대한보청기 맞춤렌탈 하세요!!

대한보청기

많은 분들이, 보청기 가격이 워낙 고가인데다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대한보청기 맞춤렌탈은, 1첫째, 목돈이 필요없으며, 2둘째, 렌탈료 월 3~4만원으로 고가의 보청기를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3셋째, A/S 고장 수리, 배터리, 청력검사 등 제반관리가 무료이며, 4넷째, 보청기 노후로 또 목돈들여, 재 구입할 일 없이 무료로 새 제품을 맞춤수 있으며, 5다섯째, 부담이 적으므로 양쪽으로 잘들 수 있습니다.

보청기는 소유가 목적이 아니며, 잘 듣기 위함으로, 부담적은 대한보청기 맞춤렌탈 하세요!!

맞춤렌탈 모델 1	맞춤렌탈 모델 2	맞춤렌탈 모델 3
맥소 프로 (개당) 월 렌탈료   40,000원 (행당가당   242,000원)	맥소 스탠드 (개당) 월 렌탈료   48,000원 (행당가당   280,000원)	맥소 크리스프 (개당) 월 렌탈료   48,000원 (행당가당   280,000원)

광주본점 062)430-8900 | 순천·여수본점 061)741-4880 | 전주본점 063)251-4999

렌탈 신청 상담 | 1544-9040

◆강안본점 02)2248-5600 ◆종로본점 02)743-8100 ◆강남본점 02)542-8500 ◆송파-잠실본점 02)420-2090 ◆영등포본점 02)2637-2800 ◆관악본점 02)3285-7600 ◆인천(부평)본점 032)516-2200 ◆수원본점 031)248-7200  
 ◆분당본점 031)707-5787 ◆일산본점 031)917-1100 ◆의정부본점 031)840-2001 ◆구리본점 031)551-1310 ◆안산-시흥본점 031)407-2999 ◆천안-아산본점 041)522-1400 ◆청주본점 043)225-2900  
 ◆대전본점 042)486-9944 ◆대전동구본점 042)634-2080 ◆대구본점 053)253-4400 ◆대구서부본점 053)657-3700 ◆대구북구(칠곡)본점 053)311-7900 ◆포항본점 054)231-8070 ◆강원(원주)본점 033)731-2114  
 ◆부산본점 051)819-0038 ◆부산북구(덕천)본점 051)335-7800 ◆울산본점 052)256-9050 ◆마산-창원본점 055)222-3050 ◆전북(전주)본점 063)251-4999 ◆순천-여수본점 061)741-4880 ◆광주-전남본점 062)430-8900